

## 교통취약지역에 자율주행차 달린다

- '26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... 강릉 ITS 세계총회 심야 DRT(강원), 읍내 순환형 농촌버스(경남) 등 8개 지방정부 총 30억원 지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·강원·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\*을 지원한다.

\* 서울(8억원), 대구(6억원), 경기(안양 4.5억원, 판교 1.5억원), 강원(강릉 3억원), 충북(혁신도시 1.5억원), 충남(내포 1.5억원), 경남(하동 1.5억원), 제주(2.5억원)

○ 이번 ‘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’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\*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. 아울러,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·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\*\*하고자 한다.

\* 설문조사 결과 만족재이용 의사 90% 이상, '25년 1월 → 6월 탑승객 수 63% 증가(하동)

\*\* 고속도로 전체 시범운행지구 지정('25년), 국내 최초 유상 화물운송 허가 예상('26년)

□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.

○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\*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.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,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많은 관광객과 국제행사 관계자들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성을 개선한다.

\* 세계 최대 규모 국제 교통 행사로, 자율주행·ITS 기술 전시 및 국제 컨퍼런스 운영

○ 경남도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하동 읍내 순환형 노선버스를 지속 운영하며, 충북도는 혁신도시 내 국립 소방병원과 연계하는 노선, 제주도는 공항~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에 자율주행 승합차를 운행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한다. 또한,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잇는 야간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퇴근 후 대중교통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.

- 서울시는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운전석을 비운 채 서비스하는 자율주행택시를 운영\*하고, 양천에서는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할 계획이다. 경기도는 안양에서 주간 및 심야 노선버스 운영과 동시에 신규 노선(관악역~안양수목원)에서 교통 혼잡 상태의 자율주행 셔틀 실증에 도전하며, 판교에서는 기존의 근로자 이동편의를 위한 자율주행 노선버스에 자율주행 DRT를 연계한다.

\*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여 비상시 대응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

- 그 밖에 대구시는 물류거점 간 미들마일 고속주행 화물서비스\*를 도입하며, 라스트마일과 연계하는 도전적인 실증을 통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화물운송 분야 상용화 가능성\*\*을 확인한다.

\* 공공(우체국 등) 및 민간(풀필먼트 센터, 대구물류센터 등) 경유 서비스 예정

\*\* 과속·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 조성 및 운송비용 절감 기대

-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“자율주행 기술은 교통취약지역·시간대의 여객운송 측면에서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으며, 화물운송에서의 활용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”이라면서,

- 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과 심야·야간 시간대 도심지의 이동수단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이동편의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, 새롭게 시작하는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에서는 경로 반복성이 높아 줄음 운전 위험성이 큰 미들마일 구간에서 화물운송 근로자의 운전 피로도를 낮추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월시 (044-201-3847)
		담당자	사무관	조상우 (044-201-3852)
			주무관	김만호 (044-201-4147)